강 시장 "대한민국 '활력 성장판' 여는 광주 될 것"

시의회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경제 활력·인재양성 재정 중점" AI·모빌리티···미래산업 양날개 지역화폐·일자리·G-패스 주력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 활력의 성장판을 여는 도시가 될 것"이라 며 "내년 예산안에는 그 목표를 위해 사람 을 키우고, 도시를 살리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광주의 전략이 담겨있다"고 밝 혔다.

강 시장은 2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 GRDP 로 수치화하는 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났 다. 대전환의 시대에 광주는 AI(인공지 능) ·미래차산업 등과 같은 미래주도산업 과 창업성장, 인재양성의 크기를 키우고, 광주가 지켜온 가치인 나눔과 연대, 민주 주의, 문화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그 가 치가 돌봄경제, 사회적경제, 콘텐츠산업 등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6069억원으로, 전 년도 본예산(6조9042억원)보다 10.2% (7027억원) 증가했다.

강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 △다시 살아나 는 도시를 위한 재정 △사람을 키우는 재



강기정 광주시장이 2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 후 2025년도 광주시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정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의 경우 온라인 소비와 스마트기술 확산으로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소상공인이 잘 적응 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공배 달앱과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또 광주상생카드에 196억원을 반영해 정부의 전액 예산 삭감에도 불구 하고 내년에도 중단없이 지역화폐를 발행 할 계획이다.

광주와 성장을 함께 할 청년들의 보금 자리, 일자리에도 242억원의 예산을 편성 했다.

강 시장은 "광주 미래산업의 양날개는 인공지능(AI)과모빌리티"라며 "AI기업 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시가 되도록 인 공지능집적단지 완공과 AI데이터센터 서 비스플랫폼 구축하고, 모빌리티산업의 주 도권 선점을 위해 미래차소부장특화단지 조성, EV배터리실증기반 구축 등 미래모 빌리티산업 기반도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 다"고 말했다.

'다시 살아나는 도시를 위한 재정'과 관 련해서는 초등생 무료, 청소년 어르신 반 값 교통비, 생애주기별 대중교통요금 할 인제도인 '광주 G-패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광주 공유자전거 '타랑께' 확 대, 걷고 싶은 길 프로젝트, 광주천 자전 거길과 보행로 정비, 스포테인먼트 도시, 공원도시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69억원 규 모의 예산을 편성해 우수저류시설 설치, 재해위험지구정비 등을 추진하고 기후변 화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사람을 키우는 재정'은 세심한 돌봄과 의료정책을 연계해 시민의 일상을 살피 고, 촘촘한 인재양성 사다리를 통해 기업 이 찾는 인재를 키우는데 주안점을 둔다. 대한민국 저출생 극복의 대표 정책이 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손자녀 가족 돌보미,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등 광주형 저출생 정책을 확대해 아이 키우 기 좋은 광주를 만든다.

또 자정에도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 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확대, 야간•휴일 에도외래·진료서비스를제공하는 달빛어 린이병원 운영,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 이 없도록 21개 응급실을 원스톱 응급의 료 플랫폼으로 연결한 응급의료지원단 운 영 등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를 선도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AI사관학교, GCC사관학교 등 광주의 대 표산업과 인재양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 실무형 인재양성 사다리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총 10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도서관-서점-광장 어디에서든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강 시장은 "미·중 갈등과 전쟁 장기화에 따라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 외수 동반 경기침체로 경제와 민생에 빨간 불이 켜졌다"며 "하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재 정 상황 속에서도 경제는 키우고, 민생은 지키고, 도시는 변화시키는 필요한 곳에 예 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따져 준비했다"고 밝혔다. 노병하·정성현 기자

이주호 "전남 통합의대 정원, 의대 증원과 맞물려 검토"

박지원 현안질의에 입장 표명 "적극 검토" 방침 불구 차질 우려

정부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국립의 대 입학 정원과 의대 증원 문제를 한 테이 블에 놓고 검토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정 갈등이 지속 될 경우 전남 의대 신설에 차질이 빚어지 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 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 의에 출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

부 장관을 상대로 전남 국립의대 유치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목포대와 순천 대의 통합 국립의대 신설에 대해 "적극적 으로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

하지만 통합 의대 정원(200명)에 대해 서는 정부와 여당,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 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먼저 해결돼 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전남(통 합 국립의대)의 경우에는 정말 하나의 안 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도 "다만 의대증원(정원) 이 슈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 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래서 이 문제들이 좀 해결 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총 정원에서 그 숫자(200명 정원)를 분석하 면 거기에 따라서 배정하는 권한은 교육 부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남 통합 국립의대의 입학 정원 수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 문제를 따로 다루지 않고, 같은 선상에서 논의해 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문 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통합 의대 정원 도 확정할 수 없다는 논리여서 향후 통합 의대 신설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날 박 의원은 이 장관에게 전남 통합 의대 신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여러차례 주문했다.

박 의원은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선언했고, 이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정 부에 통합대학 의대 추천을 요청하게 됐 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가 약속 한 대로 전남 의대 200명 신설을 허가해 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에서 유일하 게 전남에만 의과대학이 없기 때문에 전

남지사가 대학을 추천하면 200명 의대 정 원 허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라고 재 차 물었다.

이 장관은 "단일화를 결정하면 검토하 시겠다고 했다"며 어물어물하다 재차 재 촉하자 다시 "네"라고 답했다.

앞서 전남도지사는 지난 26일 도청 서 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어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은, 일반적인 의료 계의 증원 반대 논리와는 아주 다르다"며 "목포대와 순천대가 인내 끝에 대통합에 합의해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을 추진 하게 됐다. 이제 의료계가 지역의료 완결 체계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 노 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빌려준돈

'임 대 료

010-5679-0990, 062)714-2846

한정승인 공고 광주가정법원 심판

사건번호 2024느단1077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곽예은(701209-2******) 최후주소 광주 북구 양일로305번길 11, 102동 1302호(일곡동, 대림아파트)

위 망 곽예은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 조에 따라 상속한정승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 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 (공고일로부터 2개 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 에서 제외하

2024년 11월 28일 공고인: 곽성엽 한정승인 수리일: 2024년 11월 22일 공고기간: 2024. 11. 28. ~ 2025. 1. 27.

분양계약서 분실공고

주 소:전남 나주시 송월동 135-35 (나주역자이리버파크 104-2303) 계약자 : 곽도영 연락처: 010-8482-5599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문화의 선두주자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1588-0766





9-0 . 9-0 O 9 0

全南日報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